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3(土)	24(日)
비후권 21/29℃	맑음 21/30℃

#### News

- 겁나는 추석물가 ②
- 올림픽 영웅들 지금은 ③
- 베이징 올림픽 상보 18 19

#### Books

- 한국사 영향 미친 사건들 14

#### Entertainment

- TV 드라마 안방 달군다 ⑧



- '여우'들이 돌아왔다 ⑨

####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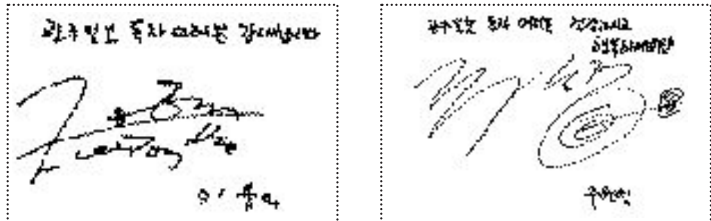
- 식품 탐구 - 민들레 13



### 베이징 올림픽 광주·전남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 ‘금빛 남매’ 이용대·주현정

김중수·이형근·장영술 감독 맹활약... KIA 윤석민·이용규 야구 결승 진출 주역



이용대와 주현정이 베이징에서 광주일보 독자에게 보낸 인사말과 사진.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출신 선수와 코칭스텝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의 아들·딸은 모두 36명. 지역 출신 대표 선수들은 22일 현재 두 개의 금메달과 동메달 하나를 수확했다. 또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한기주·이용규가 출전한 야구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전남 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금빛 낭보를 알렸던 선수는 곡성 태생의 여자 양궁 대표 주현정(26). 광주체고를 졸업한 '꽃같이 국가대표' 주현정은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6연패를 명증시켰다. '꽃미남' 이용대(20·화순실고

졸업)는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용대는 우승한 뒤, 화순에 사는 어머니에게 '금메달 링크'를 날려 베이징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광주 송일고 출신의 윤재영(25)은 유승민, 오상근과 함께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전남 출신 코칭스텝들도 배드민턴과 남자 양궁, 남자역도에서 금메달을 조련하며 대한민국 종합순위 10위의 기반을 다졌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 1·은 2·동 1개를 선사했던 화순 출신의 김중수(48) 배드민턴 감독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태극전사들을 금·은·동 시상대에 세우면서 한국의 자력을 과시했다.

16년 만의 역대 금빛 르네상스에는 전남체고(현 광주체고) 출신 이형근(44) 남자대표팀 감독이 있었다. 이 감독은 치밀한 작전으로 77kg급의 사재혁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

순천고 출신 장영술(48) 양궁 남자 대표팀 감독은 남자 양궁 단체전 3연패를 지휘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전과 개인전 싸움을 주도했던 장 감독은 베이징에서 남자 대표팀을 이끌며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왼쪽)와 주현정(오른쪽)이 22일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자랑스런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코스피 1500선 붕괴

1년4개월만에 처음... 원·달러 1,062.5원 급등

금융시장이 주시와 원화,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나타내며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68포인트(1.04%) 떨어진 1,496.91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11.68

포인트(2.36%) 내린 483.47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7년 4월10일(1,499.16)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이날 9시 개장후 12분만에 1,500

선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지수는 한때 1,477.91까지 밀리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완화했으나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져 1,500선을 넘지 못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062.50원으로 마감, 3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채권시장도 국제유가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과 맞물려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2일 오전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 4강전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8회말 1사 1루때 역전 투런 홈런을 친 이승엽이 더그아웃에서 선수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 女태권도 황경선 11번째 金 한국야구 日 꺾고 결승 진출

태권도 금메달 릴레이가 이어졌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여자 태권도 67kg급 황경선(22·한국체대)이 22일 베이징과학기술훈관에서 열린 결승에서 캐나다의 카린 세르케리를 2-1로 제압하고 한국에 11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또 한국 야구대표팀이 속적 일본을 물리치고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2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이승엽의 역전 투런 홈런을 앞세워 6-2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초반 내야의 아쉬운 수비와 선발 김광현의 난조로 0-2로 끌려가던 한국은 4회말 이용규의 첫 안타를 시작으로 1점을 만회한 뒤, 7회 1사 1-2루에서 대타 이진영의 적시타로 2-2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회에는 앞선 타석에서 삼진 2개와 병살타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이승엽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려 4-2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후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탬 한국은 6-2로 8연승 행진을 이어갔으며 23일 오후 7시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한 판을 벌인다.

그러나 남자 탁구 대표팀의 '만행' 오상은(31·KT&G)은 이날 베이징 대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남자단식 8강에서 이면타법의 '고수' 마린(중국)에게 0-4(3-11 5-11 9-11 10-12)로 패배했다.

한편 대한핸드볼협회는 21일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버저가 울리는 순간 상대의 골이 터져 28-29로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했던 관중 불복 이의를 철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국기별 메달 순위 (22일 21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46	15	22	83
2	미국	30	35	35	100
3	영국	18	12	11	41
4	러시아	16	16	21	53
5	독일	13	9	13	35
6	호주	11	14	16	41
7	대한민국	11	10	6	27

### 오늘의 빅매치 (23일) <한국시각>

- 남 하키 5~6위 결정전 한국-영국 (12시)
- 남 축구 결승전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21시 46분)
- 핸드볼 여자 3~4위전 한국-헝가리 (14시 30분)
- 야구 결승전 한국-일본 (19시)

### 오늘의 빅매치 (24일)

- 육상 남자마라톤 이봉주, 김이음, 이명승 출전(8시 30분)
- 남 핸드볼 7~8위 결정전 한국-덴마크 (9시)
- 패럴림픽 (21시~24시)

## 광주·전남 교장·교감급 인사 4명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명단 게재

### 조이 여행사

일본-캐나다

- 359,000
- 389,000
- 419,000 / 469,000
- 1,390,000
- 1,390,000
- 299,000

### 일본 일본

카멜리아 3박 4일 (45H)

- 549,000
- 699,000

### 일본 이니온

후쿠오카 하우스텐보스 5일

- 999,000
- 1,299,000

### 일본 배낭 여행 상담 가능

일본-캐나다

- 445,000
- 535,000
- 625,000
- 289,000